

고대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사례 및 유형 - 「삼국사기」·「삼국유사」를 중심으로 -

이춘양(인하대학교)*

조지형(인천가톨릭대학교)**

<국문초록>

외국인 300만 시대의 한국은 고정 관념으로 인하여 타문화에 대한 배제, 외국인에 대한 편견, 다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고, 자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먼저 개선하여야 한다. 고대국가 대부분은 전쟁과 집단 이주, 무역·문화 교류 등으로 인하여 민족적 융합이 빈번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 특징이라 할 수도 있다. 한국 또한 그럴 것이라 가정하여 오늘날의 다문화의 시각으로 한국 고대 사회를 되돌아보고자, 연구자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 고대사회 삼국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고대한국사회에서의 이주민·귀화인 사례를 수집하여 통계하고, 반복적 비교분석법으로 이주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 최종적으로 택한 57사례를 분석한 결과, 첫째, 고대사회에서 이미 ‘난민 이주 유형’, ‘종교 전파 이주 유형’, ‘거주 이주 유형’, ‘결혼 이주 유형’ 및 ‘기타 이주 유형’ 등의 이주민 집단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집단과 매우 유사하다. 둘째, 이주민과 타문화의 유입은 고대 한국 사회의 발전, 기술의 진보, 문화의 번영, 국가의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은 다문화 국가로서 다문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서 한 발 더 발전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연구 및 다문화 교육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 연구가 한국 다문화 현상 연구 및 다문화 교육에 활용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자국민의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문화교육, 고정관념, 귀화인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 수료 (lcy070926@naver.com)

** 교신저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강사 (kaisercho@naver.com)

1. 서론

광복 이후,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변혁을 거쳐 경제의 고도성장을 맞이하여 세계적 위상이 높아졌다.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특히 경제 성장의 고봉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사회 구성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오늘날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 현상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5년까지 1인 가구 및 부부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늘고, 부부 및 자녀 가구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70대 남성 가구주(13.6%), 80대 여성 가구주(7.8%)가 가장 많아질 전망이다. 내국인의 가구 증가율은 2044년을 정점을 찍고, 2045년은 마이너스 성장(-0.07%)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17).

내국인과 대조되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는 2021년 때 외국인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¹⁾. 1990년도의 체류 외국인이 겨우 49,507명이었는데 2000년대에는 210,249명, 2010년에 들어와서는 1,261,415명, 그리고 2018년 11월 기준으로 2,226,689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중·후반부터 많은 연구에서 단일민족사회 대신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된 것은 2005년 이후이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는 관점은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경우 다문화 수용도는 53.96점으로 2011년도의 조사 결과인 51.17점보다 2.78점이 증가했으나 청소년들의 67.63점보다 다문화 수용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2011년도에 비해 지각된 위협 인식을 더 크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빼앗김’은 4.4%, ‘경제적 손실’은 9.6%, ‘범죄율 상승’은 10.2%, 그리고 ‘국가재정 부담’이 10.3%로 모두 2011년보다 증가했다. 청소년들이 경우 ‘일자리 빼앗김과 범죄율 상승, 그리고 경제적 손실’은 2012년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 공통적으로 높았다(안상수, 2015: iv-xiv).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원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첫째, 단일민족 또는 순혈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한 고정 관념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단어가 정식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이며, 이는 불과 최근 30년의 일이다. 하지만 단군의 후손이라는 순혈단일민족

1)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3759&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검색일, 2018.04.19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월보 및 통계연보 자료 재정리. 검색일, 2019.01.11
<http://www.moj.go.kr/moj/213/subview.do>

의식은 1908년부터 점차 확산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대략 백 년을 넘었다. 김수자(2008)에 따르면 민족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무렵 『황성신문』을 통해서였고 단일민족주의는 구한말, 식민지시기 민족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단일민족주의는 강대국에 대한 저항의 논리이자 강대국을 지향하는 논리를 이중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즉 구한말의 단일민족주의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의 논리로 성장하여 한국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산물이라 할 수가 있다.

둘째, 다문화라고 할 때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떠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구성원에 관한 연구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문화 인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외국인이나 자문화와 대응되는 타문화에 대한 인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문화 구성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나타나는 이미지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백낙규 외, 2018)하기 위한 존재, 저임금의 3D 업종 대체 인력(김성률, 이원식, 2017), 미등록 불법체류자(윤향희, 2016) 등이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저출산·결혼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권태연, 2018), 지원의 대상(이혜자, 김병록, 2018),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어려운 가정 형편(정행준, 2012), 학교생활 부적응(이애련, 2015), 언어 발달 지원 대상자(정경희 외, 2015) 등이 있다. 어느 새, 이주민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정 관념으로 바뀌게 되어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었다. 그 결과,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외국인 300만 시대의 한국은 다문화 구성원의 지속적인 증가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불가피한 사실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관념으로 인하여 타문화에 대한 배제, 외국인에 대한 편견, 다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고 만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걸린 돌이 바로 한국은 단인민족사회라는 뿌리 깊은 생각과 오래 전부터 보수주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외국으로 나가거나 타문화의 유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극복하고 해결하여야 다문화 국가로서 다문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서 한 발 더 발전할 수가 있다. 그렇기 위하여 '단일 사회'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 부정적인 타문화 및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고대국가 대부분은 전쟁과 집단 이주, 무역·문화 교류 등으로 인하여 민족적 융합이 빈번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 특징이라 할 수도 있다. 한국 또한 그럴 것이라 가정하여 오늘날의 다문화의 시각으로 한국 고대 사회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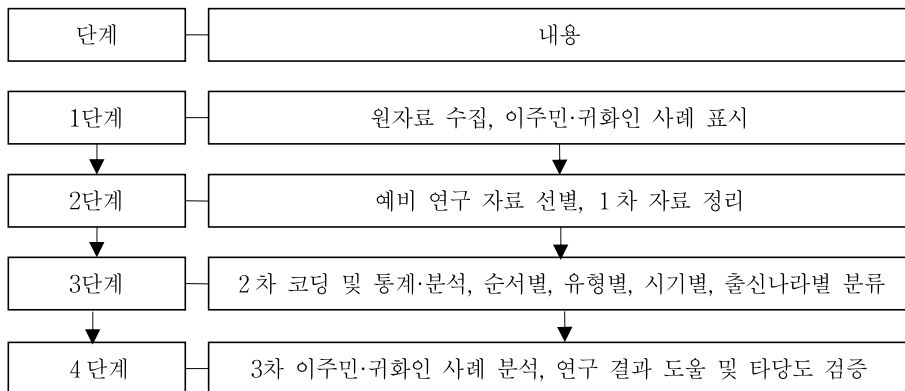
첫째, 한국 역사에서 특히 삼국시대에는 어떤 타문화가 존재했었는가?

둘째, 타문화의 유입은 고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고대 사회를 되돌아보고 사회적 구성을 재탐색하여, 고대 한국 사회 특히 삼국시대의 다문화 사례 및 유형을 살펴보고, 타문화의 유입이 고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한국 고대사회 삼국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삼국사기」·「삼국유사」, 소재 이주민·귀화인 사례 및 이주 유형을 탐색하고, 고대 한국 사회로 귀화하여 활동한 인물과 고대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한국 다문화 현상 연구 및 다문화 교육에 활용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자국민의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여 한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통계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귀화인 규모는 115개 나라의 2,000여 개 성씨로 15만 명에 달했다. 외국인 300만 시대의 한국은 사회통합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순혈 단일민족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고대 한국 사회의 구성을 재발견하기 위하여 고대 한국사 연구의 핵심 자료인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를 다문화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삼국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소재 이주민·귀화인 사례 및 유형을 탐색하고, 그 실질과 특성을 반복적 비교분석법(유기웅 외, 2016)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된 이주민·귀화인 사례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1단계: 원자료 수집

한문 및 한글이 같이 들어있는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를 반복적으로 읽고, 이주민·귀화인 사례나 타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거나 추측되는 부분을 밑줄 긋기 및 색칠하기, 메모하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색종이에 해당 이주민·귀화인의 이름이나 출신 나라 등을 간단하게 메모하였다.

2단계: 예비 연구 자료 선별

1단계에서 체크 표시한 자료들을 모두 복사·출력하여 예비 연구 자료 선별 및 1차 분류·정리 과정을 걸쳤다. 이 과정에서는 출신 나라가 불명확한 사례를 제외시키고,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중 중복된 사례를 재검토하였다. 출신 나라를 표시되어 있거나 이주민·귀화인으로 추측 가능한 자료만을 추출하여 예비 연구 자료로 택하였다.

3단계: 2차 코딩 및 통계·분석

2단계에서 택한 예비 연구 자료를 반복·비교적 분석법으로 수차례 검토하여, 출처, 시기, 출신 지역, 대표 인물, 규모 및 이주 목적, 유형 등과 관련된 핵심 단어를 찾아 기록한 후에 2차 분류 및 코딩 과정을 걸쳐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택하고자 하는 사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해당 사례와 관련된 문헌, 선행 연구 등 기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함께 탐색하고 검토를 하였다.

4단계: 3차 연구 결과 도출 및 타당도 검증

선택한 자료의 타당도 및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먼저 고전문학 연구 전문가를 섭외하여 선택한 사례의 타당도에 대하여 1차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다음, 연구실 월례 세미나에서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를 보고하여 다문화 연구 수행 경험이 많은 연구실 동료 12명에게 2차 검증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57사례를 연구 자료로 택하여 오늘날의 다문화 이주민 집단과 대조하여 분석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한국 역사 속의 이주민·귀화인 사례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귀화인에 대한 면모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다. 고대 한국 역사에서 귀화인에 관한 기록은 3,000여 년 전의 기자조선(箕子朝鮮)까지 소급될 수가 있다. 귀화 성씨는 고려 시대 60여 개로 가장 많았고, 신라 때는 40여 개의 성씨가 귀화했다(이경희, 2011). 조선 시대에 귀화한 사람들은 주로 야인[여진]과 왜

인[일본]들이었다. 울산 및 해남의 호적 대장에서는 귀화 야인들을 호적 자료에서 모두 ‘향화(向化)’로 표지되었으며 본관은 ‘후룡강’ 및 ‘대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에 귀화한 야인과 애인은 이후 누대에 걸쳐 조선 땅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조선인과 다름이 없이 동질화되어 나갔으며 그 후손들을 ‘향화인(向化人)’으로 지칭하였다(임학성, 2008).

『송사(宋史)』 「고려전(高麗傳)」 편에 따르면 ‘고려 수도에는 중국인 수백 명이 있다. 민(閩, 중국 복건성) 지역 사람이 많은데 상선(商船)을 타고 왔다. 고려는 그들의 재능을 시험하여, 회유하여 관리로 삼거나 강제로 평생 머물게 했다.’

“王城有華人數百，多閩人，因賈舶至者，密試其所能，誘以祿仕，或強留之終身。”

- 「宋史」卷246, 「高麗」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채인범묘지명(蔡仁範墓誌銘)」에 따르면 ‘채인범은 중국 송나라 천주(泉州) 출신이다 …… 광종(光宗)은 그를 머무르게 하고 관고(官誥)를 내려 예빈성(禮賓省) 낭중(郎中)에 임명하고 주택 한 채와 토지·노비 등을 하사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公姓蔡諱仁範，是大宋江南泉州人也，隨本州持禮使，寢東達扶桑，以光宗朝御宇之乾德八年，觀我明庭應茲，宗駐留使，賜官告一通，拜爲禮賓省郎中，仍賜第宅一區，并贓獲田莊。”

- 「蔡仁範墓誌銘」

고대 한국 사회에서는 귀화인에 대하여 ‘내자불거(來者不拒)’의 태도로 귀화해오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귀화인이 가장 많았던 고려 때의 귀화인의 규모는 약 24만 명에 이르렀으며(이경희, 2011) 당시 고려 전체 인구인 210만의 11%를 넘게 차지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귀화인 성씨로서는 중국계의 안동 장씨와 함안 조씨, 일본계의 김해 김씨, 몽골계의 연안 인씨, 여진계의 청해 이씨, 위구르계의 경주 설씨와 덕수 장씨, 베트남계의 화산 이씨 등이 있다. 경주 외동면 괴릉리에 위치한 괴릉 무인석은 아랍인(또는 페르시아인)의 형상과 일치한다(이창옥, 2014). 이와 같이 고대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 한족계는 물론, 발해계, 거란계, 후수 말갈을 포함한 여진계의 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몽골, 일본, 중국 서역 색목인의 귀화 사례도 많았다.

이주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3,000년 전의 단군 시기로 거슬러 올라 가볼 수가 있다. 중국의 주(周)나라 때 들어온 기자 집단이 타문화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가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고대 한국 사회에 들어온 타문화 집단의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소재 이주민·귀화인 사례들을 정리 한 결과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다.

〈표 1〉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소재 타문화 사례

사례	출처	시기	지역	대표 인물 및 규모	유형	비고
사례1	혁거세거서간	38년	일본-왜국	호공, 이주민 후세	일반 이주민	史記
사례2	혁거세거서간	38년	중국-진나라	많음	전쟁 피난자	史記
사례3	유리이사금	14년	중국-낙랑	5천 명	전쟁 귀화자	史記
사례4	탈해이사금	/	사할린-완하국	탈해왕	일반 이주민	史記/遺事
사례5	벌휴이사금	/	한국-신라	벌휴왕	이민자 자녀	史記
사례6	벌휴이사금	10년 6월	일본-왜국	1천여 명	난민	史記
사례7	내해이사금	/	한국-신라	내해왕	이민자 후세	史記
사례8	조분이사금	/	한국-신라	조분왕	이민자 후세	史記
사례9	미추이사금	/	한국-신라	왕비 석씨	이주민 후세	史記
사례10	내물이사금	38년	일본-왜인	포로 수 불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11	실성이사금	5년	일본-왜병	포로 3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12	자비마립간	19년	일본-왜인	포로 2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13	벌휴왕	15년	인도-호승	목호자, 아도화상 4명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14	진흥왕	26년	중국-진나라	심조, 유사, 명관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15	진흥왕	37년	인도-호승	비마라 등	종교 전파	史記
사례16	문무왕	11년 7월 26일	중국-당나라	과외 등 6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17	문무왕	10월 6일	중국-당나라	검이태후와 1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18	성덕왕	2년 7월	일본	204명	사신	史記
사례19	경덕왕	2년 4월	중국-당나라	도덕경 전입-사신	문화전파	史記
사례20	경순왕	3년	인도-천축국	삼장마후라	종교 전파	史記
사례21	유리명왕	3년	중국-한나라	치희	결혼이주민	史記
사례22	대무신왕	4년	/	부정씨	일반이주민	史記
사례23	대무신왕	4년	서양 백인	괴유	기술자-무기	史記
사례24	태조대왕	69년	중국-한나라	포로 2천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25	태조대왕		흉노족	선비 군사 8천 명	/	史記
사례26	태조대왕	94년	중국-요동 안평	낙랑 태수의 처자	전쟁 포로	史記
사례27	신대왕	8년	중국-한나라	대부대 필마불환	전쟁 포로	史記
사례28	산상왕	19년	중국-한나라	매우 많았음	전쟁 피난자	史記
사례29	산상왕	21년	중국-한나라	하요외 1천여 호	전쟁 피난자	史記
사례30	미천왕	3년	중국-현도	8천 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31	미천왕	14년	중국-낙랑	2천 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32	미천왕	16년	중국-현도	포로 다수	전쟁 포로	史記
사례33	미천왕	20년	중국-진나라	최비 및 기병 수십 명	전쟁 귀화자	史記
사례34	소수림왕	2년	중국-진나라	순도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35	소수림왕	4년	/	아도	종교 전파	史記
사례36	광개토왕	9월	거란족	5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37	양원왕	7년	돌궐족	포로 1천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38	영양왕	24년	중국-수나라	곡사정	정치적 망명	史記
사례39	영양왕	24년	중국-수나라	포로 수천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40	영류왕	7년	중국-당나라	도사	종교 전파	史記
사례41	보장왕	2년	중국-당나라	도사 숙달 등 8명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42	온조왕	3년	말갈족	포로 다수	전쟁 포로	史記
사례43	온조왕	8년	말갈족	포로 5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44	온조왕	22년	말갈족	미상	전쟁 포로	史記
사례45	구수왕	3년	말갈족	포로 다수	전쟁 포로	史記
사례46	침류왕	9월	인도-호승	마라난타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47	구이신왕	/	일본-왜국	1백 명	왕의 호위병	史記
사례48	비유왕	2년	일본-왜국	50명	사신	史記
사례49	성왕	19년	중국-양나라	장인, 화공 등	예술인	史記/遺事
사례50	고조선	고조선	중국-주나라	기자 부족	일반이주민	遺事
사례51	위만조선	위만조선	중국-연나라	노관 등 1천 여 명	정치적 망명	遺事
사례52	진한	진한	중국-晉,燕	진,연 유민	전쟁 피난자	遺事

사례53	지철로왕	지철로왕	울릉도	원주민-오랑캐	타종족	遺事
사례54	처용랑과 망해사	현강왕	아라비아-이란	처용 등 4명	상인	遺事
사례55	금관성파사석탑	수로왕	인도-아유타국	허황옥 등 20여 명	결혼이민자	遺事
사례56	아도기라	눌지왕	인도	목호자	종교 전파	遺事
사례57	삼소관음 증생사	신라	중국-오나라	화공 1명	예술인	遺事

「삼국사기」의 '열전'(列傳) 편 권4 <을지문덕(乙支文德)>에 따르면 영양왕(嬰陽王) 시기 중국 수(隋)나라 때의 양제가 30만 5천 명의 군사가 이끌고 고구려를 원정한 결과 다시 돌아간 자는 겨우 2천7백 명뿐이었다.

“初度遼九軍三十萬五千人，及還至遼東城，唯二千七百人。”

- 「三國史記」, 卷第四十四, 列傳第四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소재 이주민·귀화인 사례 중 이주 규모가 천 단위로 10번, 백 단위로 7번, 십 단위 및 다수는 8번의 기록이 있다. 외래 인구의 출자는 가까운 나라 중국부터 인도, 서역, 유럽까지 매우 다양하다. 유입국이 명확히 표시한 사례 중 중국은 26사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본 8사례, 인도 6사례, 말갈 4사례, 사할린, 거란과 돌궐, 흉노 등의 사례들이 있다. 고대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다양한 나라와 활발한 문화 및 무역 교류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주민·귀화인 등 타문화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2. 「삼국사기」·「삼국유사」소재 이주민·귀화인의 이주 유형

2018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1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30만 명 넘었다. 체류 자격을 바탕으로 체류 외국인들의 이주 유형을 분류하면, C-4, E-5, E-9, E-10 자격의 취업목적의 이주노동 유형, F-6 자격의 결혼목적의 결혼 이주 유형, D-2, D-4 자격의 학문 연수 목적의 유학 이주 유형, G-1 자격의 인도체류허가를 받은 난민 이주 유형, D-8, D-9자격의 경영·투자 목적의 무역통상 이주 유형, D6, E6의 예술·문화·종교 등 문화 교류를 목적을 한 문화 전파 이주 유형 및 기타 등이 있다³⁾.

<표 1>을 바탕으로 「삼국사기」·「삼국유사」 소재 이주민·귀화인 사례를 다문화의 시각으로 오늘의 이주민 집단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나타난 이주 유형으로서는 난민 이주 유형(27사례)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종교 전파 이주 유형(12사례), 이주민

3) 외국인 체류 자격: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난민(G-1), 기타.

후세를 포함한 거주 이주 유형(9사례), 그리고 결혼 이주 유형(2사례) 및 기타 이주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가. 난민 이주 유형

전쟁·피난·생계 등으로 인하여, 오늘 날의 난민 이주 유형으로 삼국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온 이주민에 관한 기록은 27사례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유입된 사람의 수도 상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난민 유형은 전쟁 포로, 정치적인 망명자, 전쟁 피난민, 생계유지를 위한 이주민 등을 모두 포함해서 통계하였다. 기실 주변국과의 전쟁, 주변국끼리의 전쟁 및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한 전쟁·피난적인 난민 유형의 이주민들이 한반도에 많이 들어온 시기는 고려 때이었다. 하지만 삼국시대부터 한반도는 이미 중국을 비롯한 주변 이민족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영향 관계 속에서 역사적 삶을 영위해 왔던 바, 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꽤 오래 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진나라 때 많은 사람들이 전란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온 기록도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赫居世居西干，三十八年春二月：前此，中國之人，苦秦亂，東來者衆。多處馬韓東，與辰韓雜居。至是寢盛，故馬韓忌之，有責焉..”

- 「三國史記」, 新羅本紀

“辰韓，後漢書云“辰韓耆老自言，‘秦之亡人來適韓國而馬韓割東界地以與之。相呼爲徒有似秦語故或名之爲秦韓。’有十二小國，各萬戶稱國。”又崔致遠云“辰韓卒燕人避之者，故取涿水之名稱所居之邑里云沙涿漸涿等。”

- 「三國遺事」, 紀異 第一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쟁 유민·난민의 사례는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표 1>를 바탕으로 난민 이주 유형 사례를 재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난민 이주 유형

사례	출처	시기	지역	대표 인물 및 규모	유형	비고
사례2	혁거세거서간	38년	중국-진나라	많음	전쟁 피난자	史記
사례3	유리이사금	14년	중국-낙랑	5천 명	전쟁 귀화자	史記
사례6	별휴이사금	10년 6월	일본-왜국	1천여 명	난민	史記
사례10	내물이사금	38년	일본-왜인	포로 수 불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11	실성이사금	5년	일본-왜병	포로 3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12	자비마립간	19년	일본-왜인	포로 2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16	문무왕	11년 7월 26일	중국-당나라	과의 등 6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17	문무왕	10월 6일	중국-당나라	검이대후외 1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24	태조대왕	69년	중국-한나라	포로 2천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26	태조대왕	94년	중국-요동 안평	낙랑 태수의 처자	전쟁 포로	史記
사례27	신대왕	8년	중국-한나라	대부대 필마불환	전쟁 포로	史記
사례28	산상왕	19년	중국-한나라	매우 많았음	전쟁 피난자	史記
사례29	산상왕	21년	중국-한나라	하요·백성 1천여 호	전쟁 피난자	史記
사례30	미천왕	3년	중국-현도	8천 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31	미천왕	14년	중국-낙랑	2천 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32	미천왕	16년	중국-현도	포로 다수	전쟁 포로	史記
사례33	미천왕	20년	중국-진나라	취비 및 기병 수십 명	전쟁 귀화자	史記
사례36	광개토왕	9월	거란족	5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37	양원왕	7년	돌궐족	포로 1천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38	영양왕	24년	중국-수나라	곡사정	정치적 망명	史記
사례42	온조왕	3년	말갈족	포로 다수	전쟁 포로	史記
사례43	온조왕	8년	말갈족	포로 5백여 명	전쟁 포로	史記
사례44	온조왕	22년	말갈족	미상	전쟁 포로	史記
사례45	구수왕	3년	말갈족	포로 다수	전쟁 포로	史記
사례51	위만조선	위만조선	중국-연나라	노관 등 1천 여 명	정치적 망명	遺事
사례52	진한	진한	중국-晉·燕	진·연 유민	전쟁 피난자	遺事
사례54	처용랑과 망해사	현강왕	아라비아-이란	처용 등 4명	정치적 망명	遺事

사례3에 따르면 고구려가 낙랑(樂浪)을 공격해 낙랑인 5,000명이 신라에 귀화하게 되었고, 사례6에 따르면 일본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신라에 1,000여 명이 들어왔다는 기록도 있다.

“儒理尼師今，十四年，高句麗王無恤，襲樂浪滅之。其國人五千來投，分居六部。”

- 「三國史記」, 新羅本紀

“伐休尼師今，十年夏六月：六月，倭人大饑，來求食者千餘人。”

- 「三國史記」, 新羅本紀

이뿐만 아니라 멀리 서역(西域)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로서 ‘온달(溫達)’을 예로 들 수 있다.

「삼국사기」 권45 열전 속의 ‘온달’ 이야기는 책자, 동화, 만화 등 여러 가지 문학 작품 형식으로 가공되어 있다. 온달에 대한 기록으로는 ‘용모가 못 생겨서 우스꽝스럽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음식을 구걸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너털너털한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왔다 갔다 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온달(愚溫達)’이라고 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외모와 다른 ‘말 타는 기술 및 사냥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溫達，高句麗平岡王時人也。容貌龍鐘可笑，中心則然。家甚貧，常乞食，以養母。破衫弊履，往來於市井間，時人目之，爲愚溫達...其馳騁常在，所獲亦多，他無若者...”

- 「三國史記」, 卷第四十五, 列傳第五, 溫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온(溫)’씨라는 성이 옛날의 강국(康國)의 왕성(王姓)과 같은 것이다. 강국은 바로 오늘날의 사마르칸트 지역이다. 지배선(2011)에 따르면 강국은 고구려는 물론, 신라와 백제와도 활발한 무역 교류가 있었다. 하지만 온달의 어머니가 처음에 평강공주의 혼인을 거절할 때 여러 번 ‘가난하다’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온달’은 한반도에서 ‘기반’이 없으며 생김새 또한 전통 동양인과 다른 서역 유목민족 사람이 난민이나 유민으로서 한반도에 들어온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사례54의 처용설화는 예술계에서도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처용의 형상에 대한 묘사이다. 「삼국사기」에 ‘현강왕’ 편에 따르면 ‘왕이 나라 동쪽에 있는 주군을 순행했을 때 어디서인가 형상과 모습이 해괴하고, 의복과 두건이 괴이한 사람 4명이 나타나 왕의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49대 현강왕 때 대왕이 개운포에 이르러 동해의 용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서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어 풍악을 연주하였다. 일곱 아들 중의 한 명이 왕을 따라 서울로 돌아와 정사를 보조하였다. 그의 이름은 처용이다.’

“憲康王：三月，巡幸國東州郡，有不知所從來四人，詣駕前歌舞，形容可駭，衣巾詭異，時人謂之山海精靈。”

「三國史記」，新羅本紀

“處容郎望海寺：東海龍喜乃率七子現於駕前，讚德獻舞奏樂。其一子隨駕入京輔佐王政，名曰處容。”

- 「三國遺事」，紀異第二

이러한 기록을 통해 「삼국사기」에서 나온 용모가 기이한 사람과 「삼국유사」에서 나온 처용이라는 인물은 동일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의 형상을 요약해보면 ‘바다에서 건너온 기이한 모습과 두건을 쓴 특이한 옷차림의 사람’들이다. 이 형상은 신라 때 해상 무역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의 아라비아 상인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처럼 용왕의 아들인 ‘처용’은 신화 속의 인물이지만 그의 이미지나 활동상 가운데 이슬람의 요소가 보이며 해상 활동을 많이 하는 이슬람의 상인(이용범, 1969)이나 정치적 망명으로 신라로 들어온 페르시아의 왕자(이희수, 다르유시 아크바르자데, 2014)로 추정하고 있다.

나. 문화 전파 이주 유형

문화 전파 이주에 관한 기록은 14사례가 있다. 「삼국유사」는 승려인 일연(一然)이 지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전쟁·피난 유형 다

음으로 많이 기록돼 있는 타문화 집단이 바로 종교·문화 전파자들이다. 유교를 제외한 종교 문화전파자 및 예술인들이 삼국시대 한반도에 들어온 사례 및 대표 인물은 <표 1>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다.

<표 3> 문화 전파 이주 유형

사례	출처	시기	지역	대표 인물 및 규모	유형	비고
사례13	법흥왕	15년	인도-호승	묵호자, 아도화상 등 4명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14	진흥왕	26년	중국-진나라	심초, 유사, 명관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15	진흥왕	37년	인도-호승	비마라 등	종교 전파	史記
사례19	경덕왕	2년 4월	중국-당나라	도덕경 전입-사신	종교 전파	史記
사례20	경순왕	3년	인도-천축국	삼장마후라	종교 전파	史記
사례34	소수림왕	2년	중국-진나라	순도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35	소수림왕	4년	/	아도	종교 전파	史記
사례40	영류왕	7년	중국-당나라	도사	종교 전파	史記
사례41	보장왕	2년	중국-당나라	도사 속달 등 8명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46	침류왕	9월	인도-호승	마라난타	종교 전파	史記/遺事
사례49	성왕	19년	중국-양나라	장인, 화공 등	예술인	史記/遺事
사례56	아도기라	늘지왕	인도	묵호자	종교 전파	遺事
사례57	삼소관을 중생사	신라	중국-오나라	화공 1명	예술인	遺事

사례46에서의 마라난타(摩羅難陀)는 ‘동진 효무제 대원 9년에 호승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왔다.’

“難陀關濟：百濟本記云。第十五僧傳云十四，誤枕流王即位甲申東晉孝武帝大元九年，胡僧摩羅難陀至自晉，迎置宮中禮敬。”

- 「三國遺事」, 興法第三

마라난타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마라난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서 찾을 수가 있다. ‘마라난타는 호승이다. 본래는 천축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백제 제14대 침류왕 즉위한 원년 9월에 진나라에서 백제로 들어왔다.’

“釋摩羅難陀。釋摩羅難陀，胡僧也。神異感通莫測，階位，約志遊方不滯一隅。按古記，本從竺乾入于中國附材傳身徵烟召侶，乘危駕險任歷艱辛有緣則隨，無遠不履。當百濟十四枕流王即位九年九月，從晉乃來王出郊迎之，邀宮中敬奉供養稟受其說。”

- 「海東高僧傳」, 卷第一, 流通一之一

인도에서 들어온 문화·전파자 유형의 사례로서 사례46에서 언급한 ‘마라난타’ 외에 사례13에서의 ‘묵호자(墨胡子)’ ‘아도화상(我道和尚)’, 사례15에서의 ‘비마라(毗摩羅)’ 또한 호승이다, 이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중의 ‘원종흥법과 염축멸신’ 편에 따르면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서역의 ‘이름난 승려들’도 있었다.

“原宗興法 厭羈滅身: 西域名僧降臨於境.”

- 「三國遺事」, 興法第三

<표 3>에서 제시한 것처럼 불교뿐만이 아니라, ‘도교(道敎)’의 유입 과정도 사례19, 사례40, 사례41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8의 ‘영류왕편’에 따르면 ‘고구려 말기의 무덕 정관 연간 사람들이 오두미교(五斗米敎)를 신봉하였다. 당나라의 고조가 이 소문을 듣고 도사(道士)를 파견하여 천존상을 보내주어 「도덕경(道德經)」을 강의하였다.’고 하였다.

“榮留王: 七年, 春二月, 王遣使如唐, 請班曆. 遣刑部尙書沈叔安, 策王爲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國王, 命道士以天尊像及道法, 徃爲之講老子. 王及國人聽之.”

-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이처럼 유교는 물론, 중국,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 도교 등 종교 문화 전파자들이 이미 삼국시대 때 많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문화 전파 이주는 종교 문화 전파자들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전파자들도 고대 한국사회에 많이 들어왔었다. 사례48 및 사례58에서 제시한 중국에서 들어온 장인 ‘화공’에 관한 기록은 바로 이에 해당된다.

다. 거주 이주 유형

「삼국사기」 권29의 ‘연표 상’에서는 ‘기자(箕子)가 주(周) 왕실로부터 책봉을 받고 한(漢) 초에 위만(衛滿)이 스스로 왕을 참칭(僭稱)할 때부터이지만, 연대가 아득히 멀고, 문자기록이 소략하여 상세하게 고찰할 수 없다(海東有國家久矣, 自箕子受封於周室, 衛滿僭號於漢初, 年代綿邈, 文字踈略, 固莫得而詳焉).’고 하였다. 고대 한국 사회에서 들어온 이주민 집단인 ‘기자 집단’ 및 ‘위만 집단’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으나 자세한 기록이 없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표 4> 거주 이주 유형

사례	출처	시기	지역	대표 인물 및 규모	유형	비고
사례1	혁거세거서간	38년	일본-왜국	호공, 이주민 후세	일반 이주민	史記
사례4	탈해이사금	/	사할린-완하국	탈해왕	일반 이주민	史記/遺事
사례5	벌휴이사금	/	한국-신라	벌휴왕	이민자 자녀	史記
사례7	내해이사금	/	한국-신라	내해왕	이민자 후세	史記
사례8	조분이사금	/	한국-신라	조분왕	이민자 후세	史記
사례9	미추이사금	/	한국-신라	왕비 석씨	이주민 후세	史記
사례22	대무신왕	4년	/	부정씨	일반이주민	史記
사례47	구이신왕	/	일본-왜국	1백 명	왕의 호위병	史記
사례50	고조선	고조선	중국-주나라	기자 부족	일반이주민	遺事

<표 4>에서 제시한 「삼국유사」의 ‘고조선’ 편에 따르면 ‘주나라 무왕(武王)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阿斯達)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다.’

“古朝鮮:周虎王即位己卯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 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謂玄菟·樂浪·帶方 北帶方.’ 通典亦同此說.”

- 「三國遺事」, 紀異第一

이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 단군 및 그의 후손이 통치한 시기 이미 중국에서 이주민들이 대량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최초의 거주 목적 이주민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가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 이주민이 들어왔다는 기록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호공(瓠公)에 관한 기록들이다. 호공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삼국유사』에서 무려 3번이나 언급하였다. 사례1에 제시한 호공에 관한 기록 외에 ‘탈해이사금’ 편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다.

“赫居世居西干: 三十八年, 春二月, 遣瓠公聘於馬韓...瓠公者, 未詳其族姓. 倭人, 初以瓠繫腰, 度海而來, 故稱瓠公.”

-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호공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은 기원전 20년 2월, 혁거세거서간 38년 봄의 일이다. 기록에 따르면 ‘38년 봄 2월에 호공을 마한에 보내 예를 갖추었다…… 호공이라는 사람은 그 종족과 성(姓)을 알 수 없다. 본래 왜인이었는데 처음에 허리에 박을 차고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호공이라 불렀다.’ 그 외에도 탈해가 피를 써 호공의 집을 뺏은 이야기, 호공을 대보로 삼은 기록, 시림에 닭울음 소리를 들어 호공을 보내 확인하러 간다는 기록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이름은 같지만 기록 및 생존 시기의 차이가 있어 같은 인물로 보기가 힘들다. 허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호공’이 대표하는 ‘호’씨 성 집단은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것은 틀림없다. 거주 이주 유형으로서 출신 나라를 알 수 없는 ‘바다에서 온 부정씨’(사례22), 일본의 동북쪽 1천리 떨어진 나라에서 들어와 6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탈해왕’(사례4) 또한 이에 해당된다.

“脫解尼師今, 一年冬十一月. 脫解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 「三國史記」, 新羅本紀

탈해의 부모는 “다파나국(多婆那國)의 왕과 여국의 왕의 딸”이라는 내용은 「삼국사

기」에 ‘탈해이사금’ 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일본 동북쪽 1천 리에 떨어진 다과나국은 오늘날의 세계지도를 찾아보면 러시아의 사할린(Sakhalin) 섬이 거기에 해당된다. 처음 들어왔을 때 성씨가 없었으나 ‘처음에 함이 도착했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 울면서 이를 따랐으니 마땅히 ‘작(鵲)’자에서 줄여 석(昔)으로 씨(氏)를 삼았다. 이는 통해 석씨 또한 이주민 성씨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脫解尼師今。一年冬十一月。此兒不知姓氏，初櫝來時，有一鵲飛鳴而隨之，宜省鵲字，以昔爲氏。又解鞶櫝而出，宜名脫解。”

- 「三國史記」, 新羅本紀

탈해왕의 후손, 즉 이주민의 후대가 신라의 왕이 된 사람은 탈해왕의 손자 벌휴이사금, 벌휴왕의 손자인 내해이사금 및 조분이사금, 조분왕의 동복동생인 청해이사금 등이 있다. 그 후의 미추이사금은 탈해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의 부인 광명부인이 바로 이주민 성씨 중의 석씨의 후세이다. 그 외에 미추이사금 이후의 유례이사금, 가림이사금, 흘해이사금 등이 모두 탈해의 후손들이다.

라. 결혼 이주 유형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서 이주민에 관한 기록 중 오늘 날과 비슷한 이주민 집단 유형인 결혼 이주 유형에 관한 기록도 있다. 사례21과 사례55는 바로 결혼 이주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다.

<표 5> 결혼 이주 유형

사례	출처	시기	지역	대표 인물 및 규모	유형	비고
사례21	유리명왕	3년	중국-한나라	치희	결혼이주민	史記
사례55	금관성파사석탐	수로왕	인도-아유타국	허황옥 등 20여 명	결혼이민자	遺事

<표 5>에서의 사례21에 따르면 기원전 17년, 유리왕 3년 10월 겨울, ‘왕비 송씨(宋氏)가 죽었다. 왕이 다시 두 여자에게 장가들어 후실로 삼았다. 하나는 화희(禾姬)라 하는데 골천 사람의 딸이었고, 또 하나는 치희(雉姬)라 하는데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다. 두 여자가 총애를 받으려고 다투고 서로 화해하지 않으므로 왕이 양곡(涼谷)에 동·서 2궁을 지어 각기 두었다.’라고 하였다.

“琉璃王：三年冬十月，王妃松氏薨。王更娶二女以繼室。一曰禾姬，鶻川人之女也，一曰雉姬，漢人之女也。二女爭寵，不相和，王於涼谷造東·西二宮，各置之。”

-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사례55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기록한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사랑 이야기가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 권3의 ‘금관성파사석탑’ 편에서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금관성파사석탑’에 따르면 ‘금관 호계사에 있는 파사 석탑은 세조 수로왕의 비 허황후 황옥. 동한 건무 24년 가신 때 아유타국에서 가져 왔다.’ 그들의 아들인 거등왕은 가락국의 제2대 왕이었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아유타의 공주와 함께 들어온 시종 등 20여 명에 달했다.

“金官城娑婆石塔：金官虎溪寺娑婆石塔者昔此邑爲金官國時，世祖首露王之妃許皇后名黃玉以東，漢建武二十四年甲申，自西域阿踰陁國所載來。”

- 「三國遺事」, 塔像第四

여기서의 서역의 아유타국은 바로 지금의 인도에 있다. 허황후위 출자인 아유타국은 역사상 실존했던 나라인지 신화에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지만(이거룡, 2017), 실제로 1985년에 이미 아유타국에 해당되는 인도의 Ayodhya에 다녀온 자도 있었다(김병모, 1988).

결혼 이후 유형은 ‘삼성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탐라국(제주)의 건국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탐라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옛 기록(동문선, 고려사, 영주지)에 이르기를 기이하게 빼어난 산이 있는데 한라산이라 한다. 구름과 바다가 아득한 위에 완연히 있는데 그 주산(主山)인 한라산이 그의 신령한 화기를 내리어 북쪽 기슭에 있는 모흥이라는 곳에 삼신인(三神人)을 동시에 탄강 시켰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년 전의 일이다.

삼신인이 태어난 곳을 모흥혈(毛興穴)이라 하는데 삼신인이 용출(湧出)하였다 하여 삼성혈(三姓穴)이라 하며 3개의 지혈(地穴)이 있다. 이 신인들을 이름하여 을나(乙那)라 하며 세 성씨의 시조이시며 탐라국을 개국하시었다. 그들의 모양은 매우 크고 도량이 넓어서 인간사회에는 없는 신선의 모습이였다. 이 삼신인은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는 원시의 수렵생활을 하며 사이좋게 살았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가 멀리 동쪽 바다를 보니 자주색 흙으로 봉한 목함이 파도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 목함을 따라 지금의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에 이르러 목함을 열어 보았다. 그 안에 알 모양으로 된 둥근 옥함이 있었으며 자주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가 옥함을 연즉 청의를 입고 자색이 출중하고 품질이 단아한 공주 세 사람이 좌석을 정제하여 같이 앉았고, 또 우마와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와서 연혼포의 해안 언덕에 내 놓으니 삼신인이 자축하여 말하기를 “이는 반듯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다”하여 기뻐했다. 사자가 두 번 절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 벽랑국(碧浪國)의 사자올시다. 우리 임금님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성숙함에도 배필을 정하지 못하여 한탄하던 차에 하루는 자소각(紫霄閣)에 올라 서쪽 바다를 바라보니 자주빛 기운이 하늘에 이어지고 상서로운

빛이 영롱한 가운데 명산이 있는데 그 명산에 삼신인이 강임하여 장차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므로 이에 신에게 명하여 세분 공주를 모시고 오게 하였으니 항려(伉儷)의 예식을 갖추어 큰 국업을 성취 하시옵소서”하고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는 동쪽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 이에 삼신인은 제물(祭物)을 정결하게 갖추고 목욕 제계하여 하늘에 고하고 각기 세 공주와 혼인하여 연못 옆 동굴에서 신방을 차리고 생활하니 인간으로의 생활이 시작이며 이로써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정주의 기초가 됐다 하겠다.

- 삼성혈의 신화

여기서 말하는 탐라국은 바로 지금의 제주도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주도의 시조인 양씨, 고씨, 부씨는 제주도 원주민 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탐라국에 들어온 3여인 또한 아유타국의 허황후와 다르게 규모가 있는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구조가 간단한 ‘나무 상자’를 타고 ‘동해가’에 닿았다는 것을 통해 비교적 가까운 나라에서 들어왔다는 가능성이 높다. 그 곳은 ‘백랑국’ 혹은 ‘일본국’이라 한다(허남춘, 2016).

마. 기타 이주 유형

제시한 ‘난민 이주 유형’, ‘종교 전파 이주 유형’, ‘거주 이주 유형’ 및 ‘결혼 이주 유형’ 외에도 많은 이주민·귀화인 집단이 존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기타 이주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6과 같이 제시한다.

<표 6> 기타 이주 유형

사례	출처	시기	지역	대표 인물 및 규모	유형	비고
사례23	대무신왕	4년	서양 백인	괴유	기술자-무기	史記
사례25	태조대왕		흉노족	선비 군사 8천 명	/	史記
사례48	비유왕	2년	일본-왜국	50명	사신	史記
사례53	지철로왕	지철로왕	울릉도	원주민-오랑캐	타종족	遺事

사례23의 ‘북명’에서 들어온 키는 9척쯤 되는 얼굴이 희고 눈에 광채가 있는‘ 서양인의 외모를 가진 기술자 ‘괴유’에 노동 이주 중의 전문 인력에 해당된다. 외국에서 유입한 타문화만이 아니다. 한반도에 있는 토착문화 자체 또한 그리 ‘단일’하지 않았다.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서 울릉도에 살았던 집단에 대해서 각각 ‘우한(愚悍)’ 및 ‘도이(島夷)’라 하였다. ‘우한(愚悍)’는 ‘어리석고 사납다’로 해석할 수가 있고, ‘도이(島夷)’는 여러 가지 국역 번역본에서는 모두 ‘오랑캐’로 해석하고 있다. ‘지철로왕’편에 따르면 ‘애초부터 울릉도에 살고 있었던 오랑캐는 어떤 민족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오랑캐’는 어느 특정한 나라보다는 야만스러운

종족이나 침략자를 대표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 같은 단어 모두 자문화에 사용하기 힘든 용어들이다. 따라서 울릉도에 있었던 원주민 집단은 지금까지 강조해 온 자문화 집단보다 자문화와 전혀 다른 이문화(異文化)의 ‘원주민’이나 ‘이주민’ 집단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3. 타문화의 유입은 고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신라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건국 시조인 박혁거세는 단군의 후세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 세력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이종욱, 2016; 조범환, 2017). 이에 비해 그 뒤의 이주민 성씨인 ‘석’씨를 가진 탈해왕의 이민자 출신이 더 확실하다. 탈해왕의 후세인 ‘이주민 자녀’가 몇 세대를 걸쳐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구려의 무관이 된 온달, 전쟁에 투입된 선비인 8,000 명도 모두 이주민들이다. 그들의 존재가 영토 개척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인재 및 인력으로 재능을 발휘하여 고대 사회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사례55의 결혼이민자의 아유타의 공주 허황옥은 한반도에 이주해 온 동시에 시종 20여 명과 수없는 아름다운 비단과 의상, 금·은·주·옥과 구슬로 된 장신구 등 ‘혼수’로 쓸 들은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 한나라(중국)에서 가져온 물건들과 함께 내고에 두어 허황후의 사시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비단, 의상, 금은주옥과 구슬로 된 장식구들은 해외로 들어온 새로운 문물들이며 신기술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아유타의 공주가 한반도로에 가지고 들어온 많은 문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식구들이었다. ‘담라국 삼성혈 설화’에 따르면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와 결혼한 세 처녀가 들어있는 돌함에 망아지, 송아지 및 오곡종자 등이 함께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망아지, 송아지, 오곡 종자는 ‘수렵채집생활’에서 농경사회에 들어갔다는 상징이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3여인과 함께 들어온 망아지, 송아지 및 오곡 종자는 앞의 허황후가 가지고 들어온 비단·금·은·장식구와 같이 선진 문물과 기술로 볼 수가 있다. 새로운 문물과 신기술의 유입은 사회의 발전 및 기술의 진보를 한 단계 더 촉진 시켰다.

마라난타는 소수림왕 때 순도에 이어 불교를 한반도에 가져와 자리를 잡았다. 도교가 유입한 초기에는 좋은 이미지를 남지 못했지만 도교의 전입을 통해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더 많아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문화 전파자 들이 고대한국 사회 문화 발전 및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증진시킨 역할을 하였으며 고대한국 사회 문화의 진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고대 한국 사회는 자문화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 인구의 이동, 빈번한 교류로 인하여, 자문화와 대응되는 다양한 타문화들이 끊임없이 전입되어 존재하였다. 고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많은 타문화가 유입돼 있었으며, 고대 한

국 사회의 발전, 기술의 진보, 문화의 번영, 국가의 안전 등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이바지를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다문화의 시각으로 한국 고전 사료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를 활용하여 고대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고 고대사회에서의 이주민·귀화인 등 타문화 사례 및 이주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 오늘날에 한국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며 고대사회에 이미 비슷한 집단이 존재했다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대 한국 사회에서 이미 ‘난민 이주 유형’, ‘문화 전파 이주 유형’, ‘거주 이주 유형’, ‘결혼 이주 유형’ 및 ‘기타 이주 유형’ 등의 이주민 집단이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이주민 집단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과 타문화의 유입은 고대 한국 사회의 발전, 기술의 진보, 문화의 번영, 국가의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사회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날의 다문화 교육 실천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국민의 고정 관념을 바꾸기 위한 다문화 교육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군의 후손이라는 순혈 단일민족의식은 1908년부터 점차 확산되기 시작해 백여 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현대인의 머릿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외국인 300만 시대의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일민족사회’ 인식을 돌이켜 사색하여, 고대 한국 사회의 구조와 비교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고정 관념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부정적인 타문화·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이주민은 더 이상 자국민과 분리하여 다루어져서는 안 될 한국사회구성원들이다.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해결하여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한 단계 더 나아가갈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과 타문화의 유입은 고대 한국 사회의 발전, 기술의 진보, 문화의 번영, 국가의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을 진행한다면 부정적인 타문화·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자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외국인·이주민의 한국 문화이해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외국인·이주민에게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가 타문화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이해 교육 및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또한 다문화교육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이주민·귀화인의 사례와 유형 및 한국과 모국 간의 문화 교류 역사를 활용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진행할 경우, 이주민들의 한국 문화이해 촉진, 한국 사회통합 및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국민과 이주민이 더불어 사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한국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배경 아래, 다문화 교육 및 한국 다문화현상 연구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의 탐색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고전 사료를 검토하여 고대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민·귀화인 사례 및 이주 유형을 다문화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 다문화 현상 연구 및 다문화 교육 실천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자국민의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여 한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 내용과 결과가 삼국시대에 제한되어 있어 고려시대, 조선시대 및 근·현대사에서의 다문화 현상 및 사례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태연 (2018).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 239-250.
- 김병모 (1988). 고대 한국과 서역관계: 아유타국고II. **동아시아 문화연구**, 14, 5-24.
- 김부식. **삼국사기 상**: 고전연구실 옮김 (2000). 서울: 신서원.
- 김부식. **삼국사기 하**. 고전연구실 옮김 (2000). 서울: 신서원.
- 김성률, 이원식 (2017).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8(1), 231-252.
- 김수자 (2008). 구한말 단일민족주의의 형성과정 고찰. **韓國思想史學**, 30, 223-250.
- 백낙규, 홍준표, 임형철 (2018). 건설현장 외국인근로 실태조사 및 개선요소 도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 136-145.
- 안상수 (2015).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연구보고 2015-55). 서울: 여성가족부.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6).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윤향희 (2016).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현대사회와 다문화**, 6(2), 127-149.
- 이거룡 (2017). 가락국(駕洛國)과 고대 남인도(南印度)의 문화적 접촉에 관한 고찰. **印度研究**. 22(1), 85-121.
- 이경희 (2011).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21(1), 111-131.
- 이애련 (2015). 한국의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11-142.
- 이용범 (1969). 處容說話의 一考察. **진단학보**, 32, 1-34.
- 이종욱 (2016). 혁거세신화를 통해 본 서라벌소국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24, 7-57.
- 이찬욱 (2014). 韓國의 歸化姓氏와 多文化. **다문화콘텐츠연구**, 17, 253-277.
- 이혜자, 김병록 (2018).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인문사회** 21, 9(1), 695-704.
- 이희수, 다르유시 아크바르자데 (2014). **쿠쉬나메: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천년 사랑**. 파주: 청아출판사.
- 일연 저. **삼국유사**. 김봉두 역(1993). 서울: 교문사.
- 임학성 (2008). 17세기 전반 戶籍자료를 통해 본 귀화 野人の 조선에서의 생활 양상 : 蔚山戶籍(1609)과 海南戶籍(1639)의 사례 분석. **古文書研究**, 33, 95-128.
- 정경희, 황상삼, 배소영, 김미배 (201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축진교육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24(4), 361-378.
-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제연, 황정미, 이은아 (2016). **2015**

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보고 2016-03).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행준 (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자아존중감·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범환 (2017). 赫居世 勢力에 의한 斯盧 小國의 形成. **서강인문논총**, 48, 73-100.

지배선 (2011). 사마르칸트(康國)와 고구려 관계에 대하여. **白山學報**, 89, 95-137.

통계청 (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통계청, 1-49.

통계청 (2017). **장래가구추계: 2015-2045**. 통계청, 1-57.

허남춘 (2016).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 7-41.

논문 접수: 2019년 1월 21일

논문 심사: 2019년 2월 18일

게재 승인: 2019년 3월 9일

<ABSTRACT>

Multi-cultural cases and types in ancient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Samguksagi」 and the 「Samgukyusa」

Li Chunyang(Inha University)

Cho Jihyeong(Incheon Catholic University)

In South Korea, the foreign population will soon reach 3 million. Most experts and scholars share the view that South Korea is gradually entering the cultural society. However, Korean citizens' multi-cultural tolerance is still very low. Rejection of other cultures,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and fear of multiculturalism resulted in a nega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alism.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ism, we should break with stereotypes and improve the nega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alism first. Most of the ancient countries had frequent ethnic fusion due to wars, mass migration, trade and cultural exchanges. This is a universal feature that exists all over the world. This study reviews that ancient Korean society at the perspective of today's multicultural perspective. After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immigrants and other cultural examples in the 『Samguksagi』 and 『Samgukyusa』 by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from March to December 2018, it is found that, firstly, ancient society has already seen the emergence of “refugee migration type”, “culture diffusion migration type”, “residence migration type”, “marriage migration type” “other migration type” and so on. Secondly, the influx of immigrants and other cultures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ancient Korean society, technological progress, cultural prosperity, national security and other aspects. As a multicultural country, if South Korea wants to further develop in the multicultural era and the globalized era, it will inevitably carry out systematic and sustained multicultural research and multicultural education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multicultural social phenomena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to change stereotypes of their own citizens, thus,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raise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the future.

★ Key Words: Samguksagi, Samgukyusa, stereotype, naturalized citizen, Multicultural Education